사랑하고 존경하는 체육인
그리고 선수·지도자 임원을 비롯한 요트 가족 여러분

대한요트협회장의 소임을 마치면서

저는 2년 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심정으로 요트협회 회장직에 몸을 던졌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듯 간절한 심정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질시와 반목, 거짓과 음모들로 인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법정 싸움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험난한 출발이었지만 대한민국 요트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직 요트계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 요트 가족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얻어 내디딘 발걸음이었습니다.

스포츠로서의 요트, 국민 레저로서의 요트,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요트의 완성이라는 새롭고 알찬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짧은 시간 이나마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요트계 사상 최초로 올림픽 개최지 현지에 해외 지부를 설치하였고, 재정자립도 최하위 단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요트인의 염원인 국제대회 유치도 이루어내는 등 적지 않은 결실은 제 마음속에 위로와 자부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요트 가족 여러분이 함께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요트인 모두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위 소임을 마치고 다시 평범한 요트인으로 돌아가면서도, 아직도 어둠에 묻혀 음습하게 자리하여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질시와 반목, 거짓과 음모, 대안 없는 비난과 비방으로 인한 분열과 쇠망의 그림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트 가족 여러분!

이제 서로 화합하십시오. 진실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2년 동안 보여주셨듯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요트인의 저력을 한데 모아 전진하십시오.

대한요트협회장으로서 행복한 임기를 마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요트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굳은 다짐이 훗날 알차고 보람된 열매를 맺어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자랑스러운 영원한 체육인, 대한 요트인으로 다시 만날 것을 확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항상 대한민국 요트를 위해, 대한 요트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한요트협회 회장
유 준 상 드림